

한국인의 죽음관

정진홍

한림대학교 과학원 특임교수

1 글머리에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대체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심정, 죽어도 되살고 싶은 기대 등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죽음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한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아무래도 생각의 틀이 서로 달라지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준거도 달라지면서 죽음에 대한 태도도 기본적인 것을 여전히 지지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양과 서양을 한 데 묶어 크게 구분할 수도 있고, 옛날과 지금을 구획지어 그 차이를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범위를 좁혀보면 나라와 민족을 울로 하여 죽음관의 차이를 말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다른 것마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한국인의 죽음관입니다. 그런데 비록 한국인이라고 한정을 지었지만 인간이기에 지니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습의 차이라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특징을 살펴야지, 서로 다른 죽음태도들을 나열하면서 어느 죽음관은 옳고 어느 죽음관은 그르다는 생각이 우리 죽음관을 이야기하면서 섞이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우리는 역사 - 문화적인 조건들이 죽음관을 서로 다르게 윤색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한 조건을 이루는 커다란 흐름은 바로 종교입니다. 대체로 종교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허덕일 때 바르고 후련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을 마련하여 이를 살아가게 해줍니다. 당연히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인데도 끝내 다가서기 싫어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답을 제시해주어 죽음을 더 이상 짐으로, 또는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해줍니다. 어찌면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종교는 죽음문제에서 시작하여 죽음해답으로 끝나는 문화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인의 죽음관을 이야기 하는 데서도 종교들의 영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종교에 따라 죽음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인으로 공유하는 죽음관 보다 종교인으로 가지는 죽음관이 우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국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의 죽음관을 한국인의 죽음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한국인이라는 울이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그래도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모아 우리는 이것이 한국인의 죽음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일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까닭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들라면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어

편 것들이 우리 표층적인 의식 저변에 있어 우리의 죽음 태도를 결정하는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혹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허물며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그러한 나도 모르는 속임을 스스로 자신에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찾아 우리가 참으로 정직하게 죽음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누구나 살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죽음 문제를 슬기롭게 겪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2 전통적인, 또는 민속적인 죽음 이해

주제가 무척 막연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특정한 종교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상관없이 아주 평범하게 태어나 살다 죽는 우리네 삶 속에 지하수처럼 흐르는 어떤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민중의 삶이라든지 민간 신앙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러한 표현은 피했습니다. 계층적인 구분을 하려는 이념이 지배하는 담론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리에서 보면 우리네 죽음이해 또는 죽음관은 다음의 몇 가지로 묘사해도 좋을 듯합니다. 하나의 긴 일관된 서술이지만 토막을 내어 서술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음을 이상스럽게,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변고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무척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태도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없었던 것도 아

니고, 편하게 죽고 싶은 희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자체를 회의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려는 태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삶이 지닌 자연스러운 어떤 고비,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자체라기 보다 죽음양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예를 들면, 채 썬 것도 못한 채 일찍 죽는 일(夭死), 갑작스럽게 뜻밖의 일로 죽는 일(橫死), 억울하고 분하게 죽는 일(冤死) 등은 무척 저어했습니다. 병들어 죽는 일(病死)도 두려운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앞에서 예거한 그러한 두려운 죽음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한, 견뎌야 하는 것으로 여기었다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제 때문에 늙어 고이 목숨을 거두는 죽음은 누구나 바라는 죽음이었고, 그것을 아예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잘 다듬어진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없지 않고, 몸과 혼의 구분이 또한 없지 않지만 그것이 그리 강하지 않았습다. 저승은 '동구밖' 이고, 혼은 한 맺힌 경우이거나 아니면 자손을 아끼어 나타나는 경우를 빼고는 그리 일컬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잘 잘못 간에 죽음 이후의 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인의 전통적인 죽음관은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죽음을 맞는 태도에 억지가 없습니다. 고통의 절규도 없고, 절망의 체념도 없고, 그렇다고 희망에 들뜬 환희도 없습니다. 물 흐르듯, 바람 불 듯 그러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이러한 죽

음관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것은 양태를 달리 하면서도 커다란 순환에서 단절 없음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심각하게 두려울 까닭이 없습니다.

3 각 종교의 죽음 이해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실은 우리 한국인의 죽음관을 형성한 어찌면 원형이라든지 바탕이라고 할 만한 것인데, 여기에 여러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그 죽음관을 꽤 많이 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죽음관을 보완하여 설명을 덧붙인 것이기도 하고,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이해를 죽음에 대해 첨가한 것이기도 합니다. 각 종교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유교:

우리 문화가 한자 문화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유교의 전래라는 표현은 어색합니다. 아예 우리 문화와 호흡을 같이 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듯합니다. 그런데 유교는 근원적으로 죽음에 관하여 직접적인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죽음관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유교는 삶을 논의하고, 그것을 일정한 의례로 정착시켜 나아가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어느 종교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교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례를 통해 죽음관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제사입니다. 제사는 죽음의례입니다. 사자(死者)에 대한 일정한 몸짓을 규범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것은 '사자의 생존'에 대한 신앙입니다. 사자 또는 망자(亡者)가 삶의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

습니다. 물론 이 때 망자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미 육신을 벗어난 혼입니다. 그러나 혼은 언제나 생자(生者)의 세계를 넘나듭니다. 따라서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또한 별리(別離)도 아닙니다. 제사는 삶과 죽음이 이어진 장(場)입니다.

이러한 유교적인 죽음관은 두 가지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는 자식을 통한 생명의 지속이 죽음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구체화한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생활공동체를 산 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은 자와 더불어 이루는 공동체로 여기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제사를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규범으로 전제하는 것은 사자와 생자가 함께 구성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유교의 죽음이해는 우리의 죽음관을 채색한 매우 오랫동안 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제사를 받을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의식은 바로 이러한 유교의 영향입니다. 이제는 꽤 많이 흐려진 죽음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 불교:

불교의 죽음관은 우리 문화 속에서 죽음 뒤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이 일관되게 하나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상황적인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또 심지어 꼬이고 뒤틀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결같은 불교적인 죽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바뀌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輪回) 또는 전생(轉生)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절대적인 종말일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전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죽음을 어떻게 맞고 이해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과제가 됩니다. 죽음은 삶을 완성시키는 도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욕심을 버리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면 죽음 이후에는 '사람'으로 되 태어나지만, 욕심에 찌들려 일그러진 삶을 살면 죽은 뒤에 '사람 아닌 사물'로 되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고통을 모두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비극의 처음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이러한 죽음이해는 죽음을 그저 삶의 종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삶을 온전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려는 희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적인 주장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이와 매우 다릅니다. 아예 죽음과 삶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죽음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죽음이란 현실적으로 없듯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도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주장마저 펼칩니다. 이러한 논의는 상식을 벗어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해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불교 자체에서조차 깊고 커다란 깨달음이 없으면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못 알아들을 주장은 아닙니다. 죽

음이 삶과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주장으로 들어보면 그 주장의 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면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같다'는 것을 가볍게 지나치면서 진정한 그 사물의 모습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죽음은 삶 밖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삶 안에 있습니다. 삶이 없었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는 죽음을 아울러 출산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는 묘사도 옳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고, 그것이 마침내 온전히 성숙했을 때 나는 내 삶을 마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을 구분하여 서로 상반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여겨 죽음을 저주하고, 죽음에 절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른 태도일 수 없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죽음을 삶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生死一如) 여기면서 그러한 죽음관을 통하여 삶을 삶답게, 죽음을 죽음답게 합니다.

어찌 보면 위 둘은 서로 상치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불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삶의 종말일 수 없다는 주장과 죽음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은 차원의 차이일 뿐 구조적인 동질성을 갖습니다. 둘 모두 한결같이 죽음을 사람답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기본적인 태도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러한 불교적 죽음관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도덕적 규범으로, 초연한 태도의 신비스러운 경지로 우리 한국인의 죽음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죽음관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크리스티교:

크리스티교는 비교적 우리 문화 - 역사 속에서 새롭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대적인 언어와 사유 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관이 아주 낯설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듯이 죽음이후를 진지하게 논의한다거나 삶의 종말이 죽음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서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종교보다도 크리스티교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원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입니다. 도식적인 분류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이원적인 태도는 뚜렷합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것, 삶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뉘어 집니다. 사실상 크리스티교의 주장에 따르면 죽음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아니 될 현상으로 묘사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죽음은 신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신이 인간의 잘못에 대한 징벌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죽음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참으로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죽음이란 아예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공포와 절망도 없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크리스티교의 죽음이해는 그것이 '죄의 값'이라는 한마디 말로 모두 요약됩니다. 그런 한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긴다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죽음을 초연하게 넘어선다든지, 죽음을 삶과 구분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티교는 이것에서 죽음에 대한 모든 설명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징벌이고 저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죄지은 삶'을 마감할 수 없는 더 없는 계기, 더 강하게 말한다면 축복의 계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는 죽음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 이후는 철저하게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그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극락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그 종교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교의 경우, 그것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현실성을 지닙니다. 천당에서의 영원한 복락(福樂),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로 묘사되는 죽음 이후의 이원적 영원성은 윤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격성을 지니고 발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계기로 한 '심판'은 죽음을 징벌일 뿐만 아니라 더할 수 없는 긴장으로 몰아넣는 계기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티교의 죽음관은 비극적이기만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크리스티교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저주받은 삶의 현실이 축복받는 삶의 현실로 바뀔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죽음은 저주이지만 죽어 되살으로써 저주받은 삶의 현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벌을 받아 죄의 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는 논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티교는 오히려 죽음을 권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을 권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죽어 되사는 신비' 속에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저주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윤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티교의 죽음관도 우리 한국인의 죽음관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주이지만 축복이라는 역설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4 맺음말

이제까지 말씀들이 내용들이 실은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우리의 죽음관, 곧 한국인의 죽음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강조되고, 어느 것이 표층에 떠오르고, 어느 것이 명목적으로 선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각기 다른 죽음관을 가진 것으로 우리 현실을 묘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죽음관은 죽음을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태도에 바탕하고 각기 종교적인 특성들을 자기의 입장에 따라 윤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서서히 퇴색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통문화가 엄연히 살아있어도 그 흔적이 옛날 같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또 각 종교의 죽음관이 강조되어 종교 간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각기 지닌 죽음관이 이전처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보면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들은 모두 힘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생물학적이고 인구학적인 죽음관만이 팽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죽음의 세속화'라고 해야 할 현실만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자칭 죽음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지로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는 것만이 참된 가치라고 여기는 반자연적인 죽음이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주검을 비롯하여 사자(死者)를 아예 배제해버린 살아있는 자만의 생활세계, 죽음을 초연하는 어떤 터득도, 되살을 꿈꾸는 어떤 도덕적 죽음 이해도 잊혀진 황량한 죽음문화의 현실, 부활을, 그래서 죽어 되산다는 신비를 유지한 환상으로 여기는 절없는 죽음문화가 합리적인 죽음이해라고 큰소리치는 암담한 죽음관들이 오늘의 우리 현실

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인의 죽음관은 뜻밖에도 불안합니다.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과 삶에 대한 유치한 본능적인 집착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죽음문화의 상실, 죽음관의 부재, 아니면 건강한 죽음이해의 소멸은 곧바로 생명에 대한 존엄의 상실, 생명에 대한 경외 곧 포기, 어쩌면 자신에 대한 끝없는 자학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해야 할 것은 죽음관자체가 아닙니다. 죽음관을 지니지 못해 엉망이 되어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한국인의 죽음관을 말하면서 이렇게 우울한 결말에 이르게 됨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의식을 지니지 않으면 사람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아직 바르고 온전한 죽음관을 구축할 수 있는 넉넉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죽음관인 자연주의적 태도,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들이 첨가해 준 귀한 가르침들이 아주 소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제각기, 그리고 서로 이어지면서 우리 한국인의 삶 경험 속에서 죽음을 고뇌하고 바르고 건강한 죽음관을 갖게 하는 참신한 역동성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일을 의도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때라고 느낍니다.